

독도의 본디 주인 ‘강치’에 헌정하는 멸종 연대기

〈바다사자〉

독도강치 멸종사

주강현 지음

“바닷속에 소처럼 생긴 큰 짐승이 있는데 눈동자는 붉고, 꼬리는 없다.” 조선시대 ‘문헌비고’(文獻備考)에서는 ‘강치’를 이렇게 묘사한다.

‘강치’는 독도에 살던 해양 포유동물 바다사자를 일컫는다. 한때 수만 마리에 달했던 ‘독도 강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집중적인 남획으로 멸종되고 말았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아시아퍼시픽 해양문화연구위원장)가 최근 독도의 본디 주인인 강치의 연대기를 추적하는 ‘독도강치 멸종사’(史)를 펴냈다.

‘오기 견문록 : 종 멸종에 관한 반문 명사적 기록’이라는 부제를 붙인 저자는 “이 책은 본디 주인인 강치에게 헌정하는 멸종의 연대기이며, 인간이 배제하고 있는 본디 주인에 대한 뒤늦은 예의이자 ‘기억투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시마네현 어부들이 독도로 몰려와 강치잡이에 나선 까닭은 가족을 얻기 위해서였다. 강치잡이



강치는 환동해 북판에 솟아있는 화산섬 독도에서 집단 서식하던 바다사자를 일컫는다. 일제강점기 일본 어부들이 집단 학살하며 멸종됐다. 1934년 독도에서 강치를 사로잡아 나무상자에 집어 넣고 있는 일본 어부들 모습. 〈서해문집 제공〉

기업(다케시마 어업합자회사)이 설립돼 조직적으로 어업에 나선 때는 1905년 6월이었다.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등이 설립한 이 회사는 1904~1913년에 강치 1만 4000여 마리를 잡았다. 강치 가족으로는 가방을, 기름으로는 비누를 만들었고, 살과 뼈는 비료로 활용했다. 1930년대는 구경거리로 서커스 업자에게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했다.

저자는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독도와 멸종한 강치 학살에 대해 생태사관, 심성사, 자료의 문제라는 세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본다. 특히 일본이 ‘다케시마 영토론’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독도 강치잡이를 정반대로 해석한다. 저자는 “생태사관이라는 입장, 즉 기존 역사관을 뛰어넘어 세계관의 전환과 모색이라는 문명사의 맥락에서 볼 때 독도의 강치종 소멸은 생태사적 범죄이며 죄악이다”고 말한다. 일본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강치잡이를 통한 독도경영은 사실상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땅 오기 섬을 찾아 일본인들의 의식에 깔린 독도에 대한 ‘심성사’를 들여다본다. 한 강치잡이꾼 후손은 독도에서 강치를 잡을 때 사용했던 녹슨 총을 저자에게 보여줬다. 그곳에서 저자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놀라운 2가지 사실을 발견한

다. 아직도 일본 정부가 오기 구미촌 세가문에 독도어장에 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정부가 독도에 관한 광물권을 등기화했다는 점이다. 헤이세이(平成) 28년(2016년) 직인이 찍힌 채광권 지도는 여전히 독도 광물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한국정부가 엄연히 외교적으로 항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독도에 강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때 비문을 썼던 저자의 끝맺음 말은 울림을 준다. “...멸종된 강치가 되돌아올 일은 없다. 비극적으로 죽어간 강치 자신의 업원은 ‘평화의 바다, 생명의 바다’일 거라 의심하지 않는다.” 〈서해문집·1만5000원〉/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는 한겨울 햇살같은 시

뜻다 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황인숙 지음

시인 황인숙은 언젠가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 미쳐버리고 싶은지 미쳐지지 않은지 / 나한테 토로하지 말라’고. 또 ‘인생의 어긋남에 대해 저미는 애간장에 대해 / 뼈개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치사함에 대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당신이 직접/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강가에서 는/우리/눈도 마주치지 말자’(‘강’중)도 했다.

거리에 툭툭 떨어지는 경쾌한 물방울 같기도 하고, 해질녘 노을의 슬픈 아름다움 같기도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안는 한겨울 햇살같은 그녀의 시는 쉽게 잊히면서도 마음에 오래 남는다.

시인 황인숙이 신작 시집 ‘뜻다 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를 펴냈다. 지난 2007년 발간한 ‘리스본 行 야간열차’ 이후 무려 10년만이다.

책에는 90여편의 시가 실렸다. 그녀 특유의 명랑함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나이들에 대한 소회 등이 오롯이 담겨 있다. 생활에 막 발붙이고 있는 그녀 시의 특징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기도 하다.

황인숙 하면 때 놓을 수 없는 고양이와 관련된 시들도 눈에 띈다. ‘아무도 없어도 될 그날까지 / 고양이들아, 너희 핏줄 속 명랑함을 잃지 마렴’(‘길고 양이 밤주기’중)이라 부르는 노래는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이기도 하다.

1984년 등단한 황씨는 ‘자명한 산책’, ‘나의 침울한, 소중한 이어’ 등의 시집을 펴냈다.

〈문학과 지성사·8000원〉/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뜻다 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하얗게
팅 하얗게
팅 눈이 시리게
심장이 시리게
하얗게

팅
네 밤그릇처럼 내 머릿속
팅

아, 잔인한, 돌이킬 수 없는 하얀!
외로움 하얀 고통스런 하얀!
불가항력의 하얀을 들여다보며

미안하고, 미안하고
그럼고 또 그럼고

새로 나온 책

▲선행의 기적=선행의 개념과 실천 방향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책이다. 저자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의 근원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끝에 자연과 인간의 삶에 적용되는 일관된 원리가 ‘선행(善行)’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책에서 왜 선행을 해야 하는지, 선행을 하면 무엇이 바뀌는지, 도대체 무엇을 선행이라 하는지 등 선행의 원리를 과학과 종교, 철학을 넘나들며 알기 쉽게 풀어준다.

〈들메나무·1만3000원〉

▲파산수업=설마 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질 때가 있다. 말쑥하던 회사가 어느 순간 부도가 나가니, 내가 뽑은 대통령이 실제로는 꼭두각시일지도 모른단가 하는 일들이 말이다. 책의 저자는 아버지와 함께 40년 넘게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경제적 파산만이 아니라 정신적 파산을 경험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준다.

〈비아북·1만5000원〉

▲소크라테스의 안경=저자 미요시 유키히코는 ‘철학의 쓸모’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에 반하여 현대인에게 철학이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에게 ‘철학의 안경’을 쓰게 함으로써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 파스칼, 니체,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른 철학 입문서들에 비해 좀 더 쉽게 철학자의 사상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arte·1만5000원〉

▲없는 사람=최정화 작가의 첫 장편소



설. 쌍용자동차 정리하고 사태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임무를 받고 투입된 밀정자(者) ‘무오’, 그의 뒤에서 정신과 세계를 조종하는 ‘이부’를 중심으로 세상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또 믿음의 불확정성 속에서 진실은 어떻게 우리와 대면하는지 이야기한다. 약자들의 면밀한 삶을 통해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을 견주어 바라보고 있다.

〈은행나무·1만3000원〉

▲전주 한옥마을을 다시보기 1=연간 1000만명이 찾는 관광 1번지 전주 한옥마을의 전경을 알고 있는가. 책은 들리는 소문과 잠깐의 구경으로 한옥마을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한옥마을의 ‘다시 보기’를 제안한다. 단순히 주요 볼거리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으로 통합적인 시각으로 썼다. 유적지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주 한옥마을의 숨어있는 가치를 이끌어내려는 최근의 시도들도 함께 살펴본다. 〈채류서·1만5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다르지만 틀리지 않아=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 하늘을 보는 방법에 대해 자기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네 마리의 미어캣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포용하는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책과콩나무·1만2000원〉

▲수상한 둔둔농장과 삼겹살 가격의 비밀=탐정물을 읽듯이 흥미롭게 이야기를 읽기만 해도 저절로 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 곳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사건들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키큰도토리·1만2000원〉

▲잔인하고 치명적인 파충류의 무법자=컴퓨터 그래픽으로 탄생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림. 파충류뿐만 아니라 강가의 모래 한 알까지 그대로 담아냈다. 파충류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신기한 파충류들이 자신만의 놀라운 싸움의 기술들을 선보이기도 한다.

〈봄나무·1만원〉

▲토끼와 비밀=새이지만 하늘을 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오목눈이의 비밀을 토끼가 알게 된다. 그런데, 토끼가 자고 일어났더니 비밀이 켈리 모양으로 만들어져 귀에서 툭 튀어나온다. 토끼는 ‘비밀’이 밖으로 나가면 ‘소문’이 될까 봐 공포 숨기지만 비밀을 영원히 숨겨둘 수만은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정글침묵·1만2000원〉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 대 화 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남원가정식추어탕

동구 호남동 73번지 (파레스호텔 앞)
건강하고 행복한 상차림

대표 진화현 ☎062)226-0911

튼튼동물병원

동구 계림동 이마트상가층
각종 백신 및 미용 중성화수술, 호텔
각종애완용품 취급 전문

☎062)511-7582, 010-3263-7582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6·92 (육구이)

북구 우산동 중문로 33-1번길 (우산초등학교 후문입구)
간접숯불석쇠구이, 숯불구이, 석쇠숯불곱창
석쇠숯불막창 배달전문점

☎062)464-0692

맘스터치 빛가람1호점

전남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중학교앞
단체주문 및 예약환영
"전화로 주문하시고 15분후에 매장을 방문하시면 바로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061)333-2256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정문사거리
악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강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대 풍 쌀 농 산

북구 서방로 39번길 9-2 (중흥평화맨션입구)
일반미, 잡쌀, 보리쌀, 현미, 서리태
팥, 들깨, 녹두, 참깨 등 잡곡 도·소매

대표 박경열 ☎062)267-0101, 010-3609-7117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한마음정육식당

북구 용봉동 159-9 (북구청 전대후문)
정육식당형 돼지고기전문점
돼지1마리(1kg) 37,000원, 돼지반마리(500g) 19,000원, 국내산생삼겹(250g) 12,000원

대표 김진표 ☎062)261-8292

우 청 미 술 관

동구 금남로2가 31번지
한국 채색화(만화) 연구소

대표 김생수 ☎062)383-8408

행복공인중개사

동구 중앙로 218번지
고객만족, 책임중개

대표 강인철 ☎062)225-3303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달 수 기 사 님 식 당

북구 우산동 206-7번지 (무등도서관 우산공원옆)
백반전문 기사님 식당(가격 5,000원)

대표 유광중 ☎062)268-9255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옆
개인단체 환영(강의내용 : 사주, 음력, 양력, 사주학, 수지직, 수축직, 이침)

☎062)432-132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 당 화 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 산 철 학 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요식업 친환경화구

관리하기 불편한 일체형화구
가스다이에서 두경이 분리되는
친환경 화구로 교체
대리점 하실분 환영. 유사품주의

☎010-4607-1512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정보빌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어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